

고독사 'NO' · 통합돌봄 'YES' · 복지사각지대 'ZERO'

남원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부 살핌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고독사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와 시민의 전(全) 생애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복지·안전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의 복지 현황을 알아본다.

▶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부 살핌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주 1회 자동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과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로 위기가구의 말벗 대화 및 복약지도 등을 지원하는 'KT 인공지능 스피커 사업'으로 위기가구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고 있으며, 23개 읍면동장이 매일 1가구 이상을 방문해 안위를 살피고, 추석과 설 명절에는 집중 살핌 기간을 정해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안부살핌우편서비스'가 선정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2주에 200가구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생필품을 대면 전달하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한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촘촘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 사업은 전 연령에 걸쳐 생애주기별 대상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사업으로, 12개 서비스에 대해 18개 공공기관이 유아 및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전 연령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무료종양질 간병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병원 입원 시 간병이 필요하지만 보호자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및 중장년층에게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 복지기동대 활동

남원시는 읍면동별로 복지기동대를 구성해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 위기가구 말벗 대화 등 지원 1인가구 대상 안부 살핌 총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선정 6월부터 2주에 200가구 대상 집배원이 생필품 대면 전달

읍면동별 복지기동대 구성 주거정비 등 불편사항 개선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복지안전협의체 구성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위험 요소 사전 개선·해결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소규모 긴급수리(전등·콘센트 등), 주거환경정비(청소·도배 등), 안전점검(전기·가스 등) 등 일상생활 불편 사항 개선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소규모 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가구당 총 150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 읍면동 복지기동대원이 출동, 점검·수리를 해주며, 질병·실업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7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의료비 등의 생활 안정 지원금도 지급한다.

▶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읍면동의 민관협력력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교육,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해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복지지원 종료 후에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와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및 지정기탁금을 연

계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2023년과 2024년에 연속 선정, 읍면동을 중심으로 재난·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마을 예방 활동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은 물론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개선·해결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안전 교육,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남원 복지·안전 119' 앱 개발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해 주민 생활의 복지 욕구와 안전 문제를 선제 대응해 복지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24
2024. 6. 5. - 6. 9.
www.mjff.or.kr